

일본 대중소설 『대망』의 수용 양상과 특징

이한정*

1. 서론
2. ‘大望’의 출현과 그 대열
3. 공감과 반감, 나아가 포용
4. 사무라이 정신과 ‘인간경영’
5.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한국어 번역본인 『대망』의 한국 수용의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1970년에 박재희 역으로 출판된 『대망』 전20권은 그 후 다른 작가의 작품을 포함하여 전32권으로까지 출간된 후, 현재는 2005년에 전36권으로 간행된 『대망』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 번역본은 제12권까지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요시카와 에이지와 시바 료타로의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이길진 역으로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32권이 일본과 정식 계약을 맺고 출간되었다. 이 밖에도 『대망』 혹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권수를 달리하는 수종의 번역본이 존재하며, 다이제스트판, ‘한권으로 읽는’ 번역본조차 출판되었다.

그래도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국에서는 우선 『대망』으로 통한다. ‘대망’이란 제목은 본래 ‘생존’과 ‘평화’를 추구하며

* 상명대학교 일본어문학과 조교수

썼던 원저자의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붙인 제목이라 한다. 하지만 『대망』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의 ‘대야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책은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매스컴에서 저급문화로도 취급되었으나, 인생경륜서, 처세술의 교본 등으로 대중 독자들을 사로잡았고 세대를 넘어 널리 읽혔다. 특히 기업 경영자와 정치가들이 애독했다. 이는 사무라이 정신을 저변에 둔 작품에서 인간을 다루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의 대망을 아마오카 소하치가 그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 배우려는 독자의 욕망에서였다.

(주제어: 아마오카 소하치, 도쿠가와 이에야스, 저급문화, 사무라이 정신, 인간경영)

1. 서론

아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970년에 국내에서 『大望』으로 번역된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의 대중소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널리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다. 이에 힘입어 2013년에는 일본에서 방영된 지 20년이나 지난 아마오카 소하치 원작의 일본 NHK대하드라마 〈徳川家康〉(1983)가 한국어자막을 입힌 13개짜리 DVD로 제작되어 국내에서 『대망』이란 타이틀로 정식 판매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요코야마 미즈데루가 작화한 『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13권 한국어판도 이미 2006년에 출판되었다. ‘대망’과 ‘아마오카 소하치’를 키워드로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이 책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관심사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번역 판본의 존재가 눈에 띄고 정치가, 경영인, 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고 추천하는 문구를 곳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십 권에 달하는 책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선배가 권해서 여러 번 읽었다는 코멘트도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2004년 10월에 서울대 총장과 국회의원 사이에서 오간 서울대 폐지론을 둘러싼 질의응답에서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는 ‘권력지향적’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서울대 도서관의 “3년간 도서대출 부동의 1위가 권력지향적인 불세출의 영웅을 다룬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언급했다.¹⁾ 대학가에서 『대망』의 인기 또한 높았다. 2008년도 주요 30개 대학 도서관의 대출현황에 의하면 고려대 도서관 대출도서 8위에 『大望』, 9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올라 있고, 홍익대 도서관 대출도서 9위, 경북대 도서관 대출도서 9위, 경희대 도서관 대출도서 13위 역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지하고 있다.²⁾

『대망』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반 가정의 장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책이었다.³⁾ 지금은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일본문학 코너에 전36권의 『大望』이 즐비하게 꽂혀있고, 그 옆에 역시 『대망』과 원저가 동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32권도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망』은 수십 년에 걸쳐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대중소설이다. 본고에서는 『대망』으로 상징되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의 한국어 번역본 현황을 개괄한 후 그 한국적 수용의 특징을

1) 구영식, 『정운찬 서울대 총장 향해 여·야, 창·방패 설전』, 『오마이뉴스』, 2004.10.18.

2) 김남인, 『판타지·일본소설·만화... 대학생 '독서편식' 심해』, 『조선일보』, 2009.2.14.

3) 일본에서 발간된 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한국어판으로 낸 AK커뮤니케이션즈의 편집자 대표 이동섭이 “처음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책(당시 제목 ‘대망’)을 접하게 된 때는 아마 고교(1970년대) 시절이었던 것 같다. 집안의 누군가가 월부로 사 들여와 책장에 장식해 두었던 것을 읽어 보면서 등장인물의 길고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헛갈리다 그만 둔 것이 그 첫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회상한 데에서도 장식장을 차지한 『대망』을 떠올 수 있을 것이다.(『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국어판이 출간되기까지』, 『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1권, AK커뮤니케이션즈, 2005, 5쪽)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徳川家康』가 어느 정도로 번역되었는지 그 현황은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의 부록 서지목록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본고는 각 번역 판본의 전모를 다시 조사하여 각 권의 권별 내역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는 『대망』의 수용 양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함이며, 『대망』의 지류를 형성하는 일본 대중소설의 번역도 시야에 두려는 의도에서다. 『대망』에 관해서는 홍정선이 『일본대중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에서 『대망』에 나타난 “전근대적 영웅주의”와 “전근대적 피라밋형 사회구조”를 통하여 일본 대중소설이 전쟁과 평화를 얼마나 이중적 모순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⁵⁾ 또한 신인섭은 『일본의 영웅서사와 역사소설』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물상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견디는 ‘일본’ 그 자체가 기조차 하다. 뿐만 아니라 ‘실무형 영웅’의 고난 극복은 경제성장 논리 하에서 견디는 ‘실무형 대중’의 모습과 그 맥을 같이한다.”라고 말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자가 열성적 전쟁협력자로서 공직에서 추방된 인물이라는 것과, 연재 당시의 일본의 상황(독자의 기대 지평과 관련하여)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⁶⁾ 본고는 이들 선행연구의 논점을 참고삼아 한국독자들에게 『대망』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4)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96-297쪽.

5) 홍정선, 『일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대망』과 『오싱』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 7호, 1985. 여름호, 110-111쪽.

6) 신인섭, 『일본의 영웅서사와 역사소설-현대 일본소설에서 본 내셔널리즘과 ‘지식인 대중’』, 『비교문학』 제32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210-211쪽. 이 밖에 이선이, 『일본문학의 ‘번역’에서 보이는 역사인식 고찰-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연구』 제18집,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2010)는 ‘역사가 번역을 통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2. '大望'의 출현과 그 대열

『大望』의 원작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는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홋카이도신문』, 『도쿄신문』, 『주니치신문』, 『니시니혼신문』에 연재되었다. 1953년에 제1권 『出生乱離の巻(출생난리의 권)』부터 제5권 『うず潮の巻(소용돌이 조수의 권)』까지 고단샤에서 간행된 이후, 1967년까지 매년 1~3권 분량으로 총26권이 출판되었다. 초판본 이후 총권수가 상이한 판본들도 간행되었으나 현재 초판 형태의 전26권이 '야마오카 소하치 역사문고'판으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다. 1964년에는 『少年徳川家康』 전5권이 청소년용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徳川家康』는 일본에서 약 4억 권이 팔렸다고 한다. 이 책을 원본으로 한 영화 〈徳川家康〉(1965), 아사히TV드라마(총70회, 1964-1965), NHK대하드라마(총21회, 1983), 아사히TV애니메이션 〈少年徳川家康〉(총20회, 1975), 만화 『徳川家康』(전23권 1984, 문고판 전8권 2002)도 제작되었다. 『徳川家康』는 전26권의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발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본고 말미에 수록한 (표1)은 이제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야마오카 소하치 『徳川家康』의 주요 번역본을 권별 내역까지를 포함하여 담고 있다. 1970년 9월 16일자 『동아일보』 1면 광고에는 『大望』 전20권의 간행을 '現代인의 虛와 實을 찌르는 감동의 實録大河小説'이라는 카피와 함께 알리며 전질 판매를 선전하고 있다. 이후 『大望』은 1973년까지 전32권으로 출판되는데, 21권에서 25권까지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다른 작품이며, 26권부터 32권까지 요시카와 에이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대망』의 후속으로 『후대망』 전15권도 발간하고 있는데, 이는 시바료타로의 작품을 옮긴 것이다. 1970년의 박재희 번역본은 2005년에 『대

망』 전36권으로 출판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⁷⁾ 전36권 중에서 제12권까지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에 해당하며, 13권부터 22권까지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작품, 23권부터 36권까지는 시바 료타로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모두 『대망』의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다. 박재희 번역본은 2005년판 『대망』뿐만 아니라 본고 말미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에는 『徳川家康』 전20권으로, 1993년에는 다시 『대망』 전20권으로도 출판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판형을 새로이 한 출판물이고, 권별 제목도 한자에서 한글제목으로 고쳐 달았다. 『대망』은 출판 현황으로만 보더라도 대대적으로 수용되었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가 국내에서 『대망』이란 제목으로 번역된 사유를 역자 박재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망’이란 제(題)는 원제(原題)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바꾼 것이다. 작자의 참뜻이 인간 군상 속에서 다음에 오는 빛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거니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생존’과 ‘평화’의 뜻을 기원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도 대망이란 이름은 원작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⁸⁾

‘대망’이란 제목은 미래의 ‘생존’과 ‘평화’를 바라는 커다란 소망을 의미하는 정도에서 붙여진 것이다. 1970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 1면에는 일본의 원저 제목을 그대로 살린 김가평 역 『徳川家康』 전26권의 간행 소식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本 作品의 特長’으로 “本 作品은 全26卷으로 된 日本 原本을 그대로 무삭제 完譯한 本邦 唯一의 全

7) 2005년판에는 옮긴이로 박재희를 비롯해 추영현 서울대학교사회학 전공, 김인영 숙명여대미술학전공 등 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대망』의 번역은 수명의 공동번역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8) 박재희, 『역자의 말』, 『大望』 제1권, 동서문화사, 1972, 416쪽.

集”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번역본의 제목을 원작 그대로 붙인 출판물이긴 하나 김가평 역은 박재희 역에 비해 널리 읽히지 못했다.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徳川家康』라는 번역본도 간간이 나왔으나 『대망』이라고 붙인 출판물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박재희 역이 재판(再版)을 속속 내고 있는 데 비해 김가평 역은 그렇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대망』은 ‘완역판’뿐만 아니라 전6권짜리 번역본, 전2권짜리 다이제스트판, ‘한 권으로 읽는’ 축약판 등이 각양각색의 형태로 수용되었다. 심지어 『대망』의 어록¹⁰⁾까지도 출판되었다.

『대망』의 붐을 타고 1970년대에 비슷한 제목을 붙인 『大野望』, 『大雄』이 간행되었다. ‘대망’이란 제목은 당시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대망』의 파급력은 여러 번역 판본의 양산에 그치지 않고 『대망』 이후에 번역된 일본의 역사소설, 시대소설, 기업소설 등의 제목에 ‘大’자를 붙이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1973년에 간행된 시바 료타로와 가이온지 조고로의 역사소설에 원제와 무관한 『大志』라는 타이틀이 붙은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한 데 모아 대하소설의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다. 『大志』 10권은 1권 『立志天下』를 시작으로 2권 『熱風路』, 3권 『飛龍臥龍』, 4권 『英雄胎動』, 5권 『昇天舞』, 6권 『相剋譜』, 7권 『因果之門』, 8권 『亂世核』, 9권 『虛虛實實』, 10권 『日月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에는 없는 출판 형태이다. 『대망』의 성공에 힘입은 독특한 번역 출판물인 것이다. 『大志』는 『大望』에서 다루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한 세대 앞서 살았던 무장들의 이야기이다. 1973년 7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에는 “徳川家康(大望)의 前代 實錄編이다!”라는 『大志』

9) 『동아일보』, 1970.12.7. 이 광고는 “무삭제 본방 완역한 유일의 전집”이라고 쓰고 있으나, 『대망』의 광고에도 “原書 컬러畫・參考圖 收録 完譯版”이라고 쓰여 있다.
10) 石仁海, 『大望經世語録』, 동서문화사, 1981은 서문에 의하면 『대망』 속의 명언을 모은 책자를 요망하는 독자들에게 힘입어 출판되었다.

의 출판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사이토오 도산, 오다 노부나가, 아케미 미쓰히데, 우에스기 겐신, 다케다 신겐의 활약을 그린 소설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人間經營·處世의 虛實을 찌르는…”이라는 광고 카피는 『대망』의 선전 문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大志』 이후에도 ‘大’를 제목에 붙인 일본 대중소설의 번역물은 아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속 이어졌다.

(표3) ‘大’자를 표제로 붙인 국내의 일본 대중소설

번역서명	원작자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권별 내역
大成 전10권	花登筐	尹淑寧	大河 出版社	1973	1.人生出發 2.苦難克服 3.好事多魔 4.空手再起 5.所望成就 6.企業戰線 7.經營試鍊 8.致富圓天 9.人生自活 10.未來의 꿈
經營大望/ 人間大望 전20권	城山三郎 清水一行 梶山季之 紫田鍊三郎	康曙海	鮮京 圖書 公社 /韓國 法曹社	1975/19 80	1.百戰百勝 2.最高機密 3.黑字經營 4.計略達道 5.無資巨富 6.快男大成 7.快速突破 8.七顛八起 9.經世大望 10.雄將大起 11.盲人重役 12.人生三 味 13.巨物大欲 14.惡人設計 15.假名 會社 16.商略達人 17.投機大業 18.社 長天下 19.上流人生 20.虛業集團
大物 전16권	花登筐 柴田棟三郎	孫楠	祐成 出版社	1977	1.立志 2.奮闘 3.戰亂 4.激流 5.波濤 6.再生 7.蓄財 8.大成 9.跳躍 10.得意 11.野望 12.商敵 13.試鍊 14.肉薄 15. 突破 16.快調
大閥 전28권	山崎豐子 城山三郎	石仁海	三韓 文化社	1979	1.出人 2.悅樂 3.強謀 4.諸行 5.拔擢 6.機斷 7.高層 8.逆法 9.黑攻 10.人間 11.白欲 12.野望 13.勝負 14.命運 15. 人脈 16.女業 17.決斷 18.社賓 19.野 雄 20.重役 21.本懷 22.官僚 23.停年 24.聖域 25.年輪 26.乘取 27.風雲 28.歷史
大家 전2권	南條範夫	沈河燮 申洙徹	靑山社	1980	全篇 後篇
大人間經 營 전20권	梶山季之 外	李京南	信一 出版社	1981	1.夜行派 2.四角派 3.背德派 4.破戒 派 5.凶器派 6.鍍金派 7.偽惡派 8.強 占派 9.快樂派 10.野蠻派 11.妄想派 12.奇妙派 13.賭博派 14.惱殺派 15.大

					望派 16. 攻略派 17. 執念派 18. 逆行派 19. 猛進派 20. 反骨派
大業 전16권	司馬遼太郎 子母澤寛	許文列	三韓 文化社	1981	1. 日月 2. 權謀 3. 朝野 4. 民章 5. 國運 6. 立身 7. 巨人 8. 政爭 9. 逆潮 10. 虛實 11. 轉變 12. 女道 13. 財魂 14. 經綸 15. 內閣 16. 大權
大權 전15권	司馬遼太郎 戶川猪佐武	許文列	瑞友	1982	1. 內閣 2. 經綸 3. 軍閥 4. 長征 5. 土道 6. 起兵 7. 天運 8. 勝敗 9. 保守 10. 党人 11. 火山 12. 金脈 13. 新流 14. 回生 15. 大權
大財實錄 전16권	梶山季之	李京南	한국 출판사	1982	1. 無賴 2. 背德 3. 快樂 4. 術數 5. 集金 6. 破壞 7. 投錢 8. 攻略 9. 商才 10. 勝負 11. 挑戰 12. 黑字 13. 權謀 14. 強食 15. 女策 16. 出世
大傑 전8권	山岡莊八	張根五	학원 서적	1983	1. 無門三略 2. 自中之亂 3. 田樂狹間 4. 侵略怒濤 5. 天下布武 6. 長篠決戰 7. 謀叛前夜 8. 大傑落
大望의 25時 전12권	清水一行	柳甲清	鍾路 書籍 公社	1983	1. 춤추는 商事 2. 정금非情 3. 多國籍 企業 4. 政商 5. 倒産魔 6. 弱者의 노래 7. 惡黨들 8. 一攫千金 9. 夜行動物 10. 巨大被害者 11. 대망의 25時 12. 企業라이벌
大顎 전3권	山岡莊八	李進珩	삼영사	1984	1. 발달편 2. 기습작전편 3. 침략편
大物 전3권	清水一行	설영환	오늘	1987	1. 投機인생 2. 上場帝王 3. 投資명령
大道 전12권	吉川英治	이유리	박우사	1993	1. 지하초의 권 2. 구중의 권 3. 호겐의 권 · 로꾸하라 행차의 권 4. 도끼와끼의 권 5. 석선의 권 6. 미찌노꾸의 권 · 화국의 권 7. 해산의 권 · 윤희의 권 8. 단교의 권 9. 가마꾸라님의 권 10. 삼계의 권 11. 꾸리까라의 권 12. 일문도락의 권 · 기소님의 권
大夢 전5권	津本陽	임종한	매일 경제 신문사	1993	1. 용지를 품다 2. 상경의 꿈을 이루다 3. 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4. 천하명정을 하다 5.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大’자를 붙인 일본소설 번역서가 유행한 것은 『대망』의 영향이다. 1973년에 간행된 『大成』의 번역자는 “요즈음 독서계의 롱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대하소설 <대망(大望)>이 정치인, 경영가, 군인, 그 외 모든 분야의 활동가들에게 인생 경쟁의 <좌우명서(座右銘書)>가 되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처럼, 이 소설은 돈 꿈을 품은 모든 현대인들의 경서(經書)가 될 특이한 장르의 소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大成』은 역사소설도 아니고 “맨 몸의 한 처녀가 억대의 재산을 쌓아 가는 과정을 집요할 만큼 파고들어 추구한 이색적인 소재”¹¹⁾를 다룬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소설도 『大望』과 견주어 ‘경서’ 또는 ‘경영의 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역사소설이나 시대소설만이 아닌 ‘기업소설’도 모두 ‘경서’라고 불렸다. 1975년에 『經營大望』으로, 1980년에는 『人間大望』으로 중복 출판된 작품에서 ‘경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해지고 있다.

기업 소설(企業小說)은 기업 경영에 따른 모든 인간 역학(人間力學)을 주제(主題)로 보다 차원 높은 인생 경영(人生經營)의 현장(現場)을 리얼하게 원색적(原色的)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리고 맹렬 인생(猛烈人生)들의 경세 소설(經世小說)이기도 하다. (중략) 경영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본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과 조직의 냉혹성을 고발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새 인간상을 창조해 낸 <멋진 신세계(新世界)>가 바로 이 기업소설이다. (중략)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기업 전국 시대(企業戰國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정말이라면 이 때를 당하여 기업 영웅들이 속출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¹²⁾

이 역자 서문의 제목은 ‘人間勝負의 經典’이다. ‘기업소설’은 ‘인생 경영의 현장’을 보여주며, ‘시대의 ‘영웅’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소설 『대

11) 윤숙영, 『역자의 말』, 『大成』 제1권, 大河出版社, 1973, 2쪽.

12) 康曙海, 『人間勝負의 經典—머리말』, 『人間大望』 제1권, 韓國法曹社, 1980, 4쪽.

망』이나 『大志』와 같은 ‘경서’인 것이다. 이렇게 『대망』의 출현은 역사 소설과 기업소설 등 일본 대중소설의 번역서가 국내에 난무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대중소설은 단지 흥미본위로 그치지 않았다. 소설 장르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 수 있는 처세를 가르쳐주는 책으로 통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을 원산지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이 이들 출판물에도 향하고 있었다.

3. 공감과 반감, 나아가 포용

『大望』은 일본의 전국(戰國)시대의 무장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군용 할거하던 지방 무사들의 알력 속에서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江戸)시대를 열고 죽기까지의 70여 년 간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實錄大河小説’이다. ‘實錄大河小説’은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1967년에 간행된 유주현의 『조선총독부』에 붙여진 말이다. 『대망』에 이 말이 붙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조선총독부』에서 연유하는지도 모른다. 『대망』 이후 ‘大’자를 붙인 일본 대중소설 번역서에는 ‘대하소설’이란 말이 붙었다. 국내에서 번역 출판물로 만들어진 일본 ‘대하소설’은 이야기의 재미와 흥미를 넘어 인생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망』의 역자인 박재희는 이 소설을 처음 번역하려고 했을 때와 달리 번역을 마치고서 인생의 철학을 말하는 책으로 읽혀 남다른 감회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역자는 이 소설을 처음 대했을 때 하나의 커다란 희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 소설이 십 칠 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신문에 연재된 신문 회수로 사천 칠백 이십 오 회, 원고지(사백 자 원고지)로 일만 칠천 사백 팔십 이 매를 메운 놀라운 대하소설이고, 현재 보급판, 장서판 등등…… 단행본으로 출간 되어 약 천 칠백만 부가 매진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에, 무엇이 그토록 읽힐 수 있게 했던 것인가 하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대중소설이요, 하나의 시대소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막상 다 읽고 난 역자로선 너무나 많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설에는 인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한 이상이 있다. 비록 시대를 달리한 이민족(異民族)의 전국 무장(戰國武將)들 생애를 그린 소설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는 인간의 투쟁이 넘쳐흐르고 있다.¹³⁾

여기에 인용한 역자의 소감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대중소설’ ‘시대소설’을 대수롭지 않은 소설로 바라보는 역자의 시선이다. 둘째는 『大望』을 ‘인생’의 ‘철학’이 담긴 소설로 받아들이면서 민족과 시대를 초월한 현재 국내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투쟁’을 담은 서사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에 대한 역자의 인식은 이후 국내의 『대망』 수용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대망』은 ‘대중소설’로 저급문화로 인식되어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철학과 경영 전략이 담긴 ‘경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현저했다.

1971년 8월 17일자 『경향신문』은 ‘서울의 새풍속도’를 전하는 글에서 “한동안 짝짱한 매상고를 올렸던 한국번역판 『大望』(전20권)은 1만 6천 원인데 비해 원판인 『徳川家康』(전26권)은 1만 3천여 원으로 값도 싸 일 본어해독이 가능한 40대 이상에게는 인기를 끌어 어떤 직장에서는 부장급인 40~50대에게 『徳川家康』는 뇌물로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

13) 박재희, 앞의 책, 415쪽.

다”¹⁴⁾라고 쓰고 있다. 『대망』은 출판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어를 익힌 중년 남성들에게도 향수를 자극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식민 지배가 끝난 후 식민문화에 다시 끌려가는 형상인데, 『대망』은 그 식민문화의 잔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수용 양상을 띠면서 한국 독자들의 정서를 자극했다. 1978년에 안동민 역으로 번역된 『大雄』 전26권은 일본어 문고판 원저와 같은 권수와 동일한 문고 판형으로 출판되었다. 책 띠에는 “雄志를 품은 엘리트의 時空을 超越한 人生經綸書!”라는 문구가 새겨있다. 『대망』이나 『大雄』은 분명 ‘인생경륜서’라고 선전되었고, 독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당시 신문소설의 등장인물이 『대망』을 언급할 정도였다. 1974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박경리의 소설 『斷層』을 보면 “야망을 크게 가져라 그겁니까? 저 일본사람 소설 덕천가강(德川家康)이 이곳에선 대망(大望)이란 제목으로 나돌더군요. 대망…… 그래서 그런지 삼국지만큼 팔린다는 소문이고 독자는 정치인들에게 많 다던가?”¹⁵⁾라는 말이 등장인물의 대사에서 나온다. 『대망』이 전하는 메시지는 ‘포부’나 ‘야망’이었던 셈이다. 독자들의 ‘야망’을 자극하는 책으로 『대망』은 읽혔다.

박재희 역 『大望』은 1992년에 『德川家康』란 제목으로 재판되었다. 이 번역물의 광고에는 ‘키워주고 싶은 후배에게’라는 카피가 달려 있고 그 아래에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고 웅장한 스케일의 德川家康. 손자병법의 전술, 전략을 능가하는 新世代 삶 의 지혜”¹⁶⁾라는 글귀가 새겨있다. 『대망』은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소설이라는 메시지다. 『대망』이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책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독자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14) 『경향신문』, 1971.8.17.

15) 박경리, 『斷層』(56), 『동아일보』, 1974.4.24.

16) 『경향신문』, 1992.9.16.

있다. 한 육군 장교는 『대망』을 읽고 감동하여 거기에 나오는 명언을 발췌하여 동료 장교와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에 부응하기 위해 『대망』의 명언록인 『大望經世語錄』이 간행되었다. 『대망』은 어록까지 출판할 만큼 인기를 모았다. 2005년에 간행된 『대망』 제1권의 머리말에 보면 『대망』 붐이 다음과 같이 개괄되어 있다.

1970년 봄, 동서문화사가 한국어판 《대망》을 펴내자, 삼시간에 전국의 독서계를 석권하여, 이른바 ‘대망 독자층’을 형성하는 경이적인 독서 붐을 일으키며 중판을 거듭했다. 이는 그 무렵 침체일로에 있던 출판계에 돌풍 역할을 하여 《대망》을 흥내낸 역사소설·시대소설 등이 잇따라 출판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대망》의 열화 같은 감동과 인간과 역사를 꿰뚫는 그 폭풍적 충격에 맞서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망》은 실록대하소설의 종주로서, 평생 책을 손에 잡고 읽어본 일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지식인·대학가·산업사회·경제계·정계·학계 등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넓혀지며 독자를 넓혀갔다.¹⁸⁾

『대망』이라는 출판물에 보내는 과장된 찬사처럼도 들리지만, 『대망』은 사회 각 방면 인사들에 의해 수시로 언급된 책이었다. 2005년판의 표지의 안 날개에는 ‘완역명역 『대망』을 보는 거장들의 시각’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진오 전고려대총장, 김소운 일문학 원로, 장덕조 작가, 곽종원 전문예진흥원장, 김진홍 전주택은행장, 유주현 소설가의 사진과 함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이들 추천사 속에서 반복되는 말은 ‘인간경영’ ‘경영자 필독서’ ‘인간경영자 백과사전’ ‘인간치세 경략서’라는 문구다.

이렇듯 『大望』은 1970년에 출판되어 한국의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반감도 적지 않았다. 1970년 12월 2일 『동아일보』

17) 石仁海, 앞의 책, 14쪽.

18) 김인영, 『인간시대 대망시대』, 『대망1』, 동서문화사, 2005, 18쪽.

의 가십란 「황설수설」은 “이즈음 日本의 번역소설이 왜 이렇게도 판을 치고 있을까”라는 말로 시작하여 ‘文公政策’까지를 언급하며 ‘興味本位’의 일본 대중소설이 성행을 이루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번역소설이라 해도 건전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서 국민의 敎養을 일깨워 준 것이라면 모르되 거개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그려내는 것들이라는 데 있어서는 말문이 막힌다. 이를테면 『大望』이라든지 또는 『風雲兒』(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린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인용자)와 같은 大河小說을 들 수 있겠다. (중략) 기왕 興味本位로서 日本의 低俗文學을 읽히는 한이 있더라도 개중에는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는 反面 또 十分 경계해야 할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日本民族이란 그 癖性이 好戰性을 갖는데다가 파리대가리 만한 利害가 있는 곳에는 피를 보고야 마는 것이 십상팔구다.¹⁹⁾

『大望』을 필두로 하는 일본의 대중소설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글은 무엇보다도 사무라이 소설에 담긴 일본의 ‘好戰性’을 경계하고 있다. 대중소설이라 해도 전혀 ‘참고’할 수 없는 것이 『대중』과 같은 소설인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12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反主體的 日武士小說붐」이란 글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대망』 등 사무라이 소설의 붐을 “日本의 文化植民地化”로 파악해 “四十代の復古調와 젊은 세대의 막연한 好奇心이 큰 원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國民의 主體意識의 결여 때문이다”²⁰⁾라고 말하며 국민적 자존의 문제로도 연결 짓는다. 이 밖에도 『대망』 등을 일본의 ‘低俗文學’이나 ‘低質文化’로 규정하는 논조가 잇따랐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공유되었던 시각이었고, 일본의 ‘低質文化’에 경도되는 독자들에게는 ‘국민의 주체의식’이 부족하다는 타박도 이어졌다. 1971년 『月刊中央』 3월호에

19) 『동아일보』, 1970.12.2.

20) 『동아일보』, 1970.12.25.

게재된 『小説 徳川家康이 웬말이나 包裝紙文化, 表皮文化 排撃論』이란 제목의 지명관의 글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주체의식’을 일제강점기와 관련지어 말하는 이 글은 한국독자들이 『大望』을 읽기 위해서는 “日本式 발상과 감정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데, 국내 독자들은 “日帝下의 교육과 훈련”으로 이를 쉽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한다. 『大望』을 읽으면서 자칫 “과거를 美化하기 쉽”고 “日帝下에 우리가 겪었던 苦難은 脱落해 갈 수 있다²¹⁾라는 논조로 식민지문화에 대한 예속화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1972년에 『大望』有感』을 쓴 정치학자 김진은 『大望』이 시중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으나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은 術數나 技巧의 效驗을 過信하고 또 그것에만 치중하는 경향은 무엇인가 위태롭고 先後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가뜩이나 道德과 倫理에 냉담한 작금의 세태라 더욱 그러한 의문이 짙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大望』에서 그려지는 난세를 살아가는 사무라이들의 술수 등이 “反人間的 出世狂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造장”시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의 표명이다.²²⁾ 『大望』을 ‘인생경륜서’로 선전하는 출판사의 시각과 상반된 미디어의 반응이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의 ‘저급문화’로 『대망』을 지칭하며, 그 무분별한 수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大望』의 수용에서 일본 ‘저급문화’에 대한 비판은 끝내 미풍에 그쳤다. 1992년에 『徳川家康』로 재판된 박재희 역의 『大望』은 아래와 같은 광고 문구로 독자들을 자극했다.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무사, 정략의 도구로 팔려가는 여자, 권력자의 횡포와 압제에 체념하면서도 무섭게 변하는 백성……. 술하게 명멸하는 이들 인간군상

21) 지명관, 『小説 徳川家康이 웬말이나 包裝紙文化, 表皮文化 排撃論』, 『月刊中央』36, 중앙일보사, 1971, 291쪽.

22) 金憲, 『大望』有感』, 『동아일보』, 1972.9.16.

의 면면을 통해 정치지도자 특히 대권주자의 덕목과 자질, 강자의 도량과 약자의 처세술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 정치지도자, 군인, 기업인, 샐러리맨 등 조직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²³⁾

『대망』에서 그려지는 ‘사무라이들의 술수’를 오히려 ‘처세술’로 선전하는 광경이다. 출판물에 대한 광고문구이긴 하나 『대망』에 대해 반감을 보일 때에 나열된 말들이 1990년대의 시점에서는 ‘처세술’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 재판된 박재희 역의 『대망』의 표지 안 날개에도 “徳川家康의 심오한 人生經營과 달관된 統治哲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과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로움을 일깨워 준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듯이 『대망』은 줄기차게 ‘인생경영’을 가르쳐 주는 책으로 선전되었으며, 이러한 선전문구에 독자들의 호응도 뒤따랐다. 이는 『대망』이 재판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처세술의 ‘교본’으로 선전되고 그에 부응해 재판을 거듭하던 박재희 역 『대망』은 2000년에 뜻하지 않는 복병과 조우한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가 2000년에 일본과 정식 계약을 맺고 『대망』이 아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원제를 그대로 붙인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전32권의 이길진 역으로 솔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책(표1 참고)을 2001년 4월 26일자 『매일경제』는 「책방 휘도는 日전국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해 분명 배우는 것이 있다. 전국시대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나 사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때의 진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²⁴⁾ 이제 일본 전국시대의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23) 『경향신문』, 1992.9.16.

24) 『매일경제』, 2001.4.26.

『대망』은 당당하게 한국 독자들에게 배울 거리를 제공하는 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을 알기 위한 참고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소개되었다. 솔출판사의 번역본은 역사적 고증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독자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록과 연표, 용어와 인물 설명, 나아가 해설까지 곁들여 전32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판했다. 이러한 기획에 힘입어 일본의 사무라이를 다룬 『대망』과 같은 소설은 ‘저급문화’나 ‘반인간적 술수’가 난무하는 책이 아닌 일본을 이해하는 양서로 거듭났다. 솔출판사에서 간행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범례 앞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바로 읽기 위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특별히 배치하여 “일본의 대표적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 전통 생활, 정신세계 등 일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망』,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저속문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흥미와 재미 위주의 대중소설도 아니다. ‘수준 높은 문학 작품’으로 2000년에 새롭게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역자 후기에서 이길진은 패전 후 일본의 경제 부흥기에 “일본의 새로운 경영 마인드와 합치되어 이에야스 붐을 조성하게 되어 이 작품이 ‘경영의 지침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작가가 추구한 평화에 대한 희망希願이다”라고 말하고, “작가는 이에야스가 만년에 이 사상(무소유 사상-인용자)을 바탕으로 하고 주자학朱子學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엄격히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이 없는 265년간에 걸친 에도 바쿠후江戸幕府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고 있다”²⁵⁾라고 쓰고 있다. 이 역자의 논리를 쫓아가면 『도

쿠가와 이에야스』는 ‘경영의 지침서’이자 ‘평화를 희구하는 책이며 ‘주자학’의 ‘통치 이념’을 구현한 사상을 담고 있는 양질의 문헌이다. 흥미로운 점은 주자학에 관한 언급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주자학을 관련 지어 말하는 방식은 2005년판 『대망』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1970년에 출판될 당시에는 전혀 없던 주자학 관련 내용이 제1권의 역자 서문에 보인다. “세상이 올바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에야스는 교학(敎學)에 힘썼다. 과일에 씨가 있듯이 사물에는 모두 중심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학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계의 경(敬) 사상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²⁵⁾라는 식으로 뜬금없이 ‘퇴계의 경(敬) 사상’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 이 글의 전후 문맥에서는 이 양자의 관련성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듯이 제1권의 말미에는 「《대망》 이데올로기와 퇴계 경 사상」이란 장문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일본의 퇴계 연구자였던 아베 요시오(阿部吉雄) 도쿄대 명예교수가 말한 “조선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경(敬) 사상은 도쿠가와 정권 이데올로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를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이 글은 무려 21쪽에 걸쳐서 도쿠가와 막부와 퇴계 사상의 관련성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일본은 전국시대에 조선을 침략하여 처참한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조선에서 가져간 퇴계학으로 근대정신을 일깨웠다. 그러나 퇴계 이황의 경(敬) 사상은 도쿠가와 막부, 메이지 시대를 거쳐 오늘의 일본에까지 면면히 흐르는 《대망》 이데올로기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²⁷⁾라는 말

25) 이길진, 「무소유를 가르친 ‘이상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32권, 서울출판사, 290-291쪽.

26) 김인영, 「인간시대 대망시대」, 『大望』 제1권, 동서문화사, 2005, 16쪽.

27) 김인영, 「《대망》 이데올로기와 퇴계 경 사상」, 위의 책, 622쪽.

을 하기 위해 퇴계의 경사상을 가져온 것이다. 『대망』이 한국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싹튼 ‘경 사상’이 일본에서 숙성되어 빛을 발했고, 『대망』은 그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망』이 한국의 품에 안기는 형상이다. 『대망』을 처음 수용할 때 보였던 ‘사무라이의 술수’ 등을 운운하며 나타났던 반감은 이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망』은 한국문화와 깊은 관련성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마오카 소하치의 『대망』에 ‘퇴계의 경 사상’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대망》 이데올로기와 퇴계 경 사상』은 이를 밝히는 글이 아니다. 『대망』의 내용보다는 도쿠가와 막부와 퇴계의 경 사상이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전제를 제기하기에 급급하다. 이는 『대망』이 한 작가의 소설이라는 점을 경시하는 태도다. 1973년 8월 11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에서 출판평론가 한태석은 『徳川家康』가 역사적 사실과 픽션의 배합을 시도한 작가의 가공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흔히 역사상 이름을 남긴 인물들에 관한 문헌에는 주로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을 뿐 사생활 같은 건 아예 빠져 있기가 일쑤다. 『徳川家康』의 作者는 바로 이러한 면을 살려 史實과 픽션의 배합을 수없이 시도하고 있다. 가끔 그것이 좀 엉뚱한 데로 비약, 독자를 어리둥절케 하는 결함도 없는 건 아니지만 徳川家康의 人間操縱術과 근대경영으로 통하는 치밀한 통찰력과 실천성, 適期の 布石은 대중소설이 지니는 재미를 업고 복잡다단한 現代를 지혜롭게 살려는 독자들에게 쉽사리 迎승되었다고 본다.²⁸⁾

이 칼럼은 『대망』의 국내 인기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徳川家康』가 일본에서 언제 어떻게 출판되어 어떤 식으로 공전의 히트작

28) 한태석, 「흘러간 萬人의 思潮 베스트 셀러(23) 山岡莊八작 『徳川家康』」, 『경향신문』, 1973.8.11.

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일개 대중작가의 작품 1천 만부 판매기록 기념행사에 일본의 수상, 일본은행 총재, 정계, 재계, 문화계의 대표가 ‘몰려들어 축사를 하는 광경은 일본은 물론 세계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徳川家康』은 “대중소설이 지니는 재미를 업고 복잡다단한 現代를 지혜롭게 살려는 독자들에게 쉽사리迎습되었다”고 말하는 지적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떠나 ‘대중소설’로서 『대망』이 지닌 본질을 적시한 말이다. 그렇다면 대중의 독서물로 퇴계의 경 사상과 『대망』의 이데올로기를 관련짓는 것은 좀 생똥맞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05년에 발간된 『대망』에 이러한 해설을 붙여 있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조건 속에서 『대망』을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망』은 인생경륜서로서 선전되었고 여기에 독자들은 공감했다. 한편으로는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저급한 일본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전란을 이겨내는 사무라이들의 삶은 현대인의 삶과 조응하면서 독자들의 반감을 불식시켰다. 한편으로는 사무라이들의 이야기가 일본만의 특색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망』은 일본을 이해하는 길잡이로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자학’이나 ‘퇴계의 경 사상과 관련을 지어 『대망』은 한국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알 수 어렵다. 다만 전란을 살아가는 사무라이들의 삶 속에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독자들이 많았다는 점은 알 수 있다.

4. 사무라이 정신과 ‘인간경영’

『大望』은 ‘인생경륜서’나 ‘경영 지침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 소설에는 ‘전쟁’이 그려지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이 일본의 ‘전국(戰國)시대’라는 점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활약이 뒤따른다. 즉 퇴계의 경 사상보다는 사무라이 정신이 이 작품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망』이 나타내는 사무라이의 이미지는 1970년에 처음 번역된 출판물의 선전에서부터 이용되었다. 아래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일보』 1면에 내걸린 출판사의 광고를 보면 그 한 가운데에 사무라이의 투구가 형상화되어 있다.

(그림1) 『동아일보』 1970년 9월 16일자 1면 광고



『대망』을 출판하는 출판사는 사무라이의 이미지를 출판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아직 일본에 대해 국민감정이 좋지 못했던 시기에 사무라이를 전면에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지의 내용에 좀 더 주시하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광고 카피 ‘現代人の 虚와 實을 찌르는 感動의 實錄大河小説’의 오른 쪽에 적힌 문구에서는 『大望』이 정치인에게는 ‘治道の 安全’, 사업가에게는 ‘經營의 要領’, 군인에게는 ‘兵法의 構圖’, 관리에게는 ‘公僕의 眞髓’, 주부에게는 ‘自己의 再發見’, 청년에게는 ‘來日의 進路’, 실의에 우는 자에게는 ‘昏迷의 清算’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선전 문구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대망』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출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爆發的 話題, 그 核!’이라는 문구 옆에 적힌 ‘世上一冷酷한 賭博場’, ‘人間一窮地에 몰리면 울부짖는다’, ‘處世一 강한 者が 이긴다. 忍耐力이 강한 者가’라는 캐치프레이즈와 ‘時代를 만드는 者は 權力의 按配만으로는 안 된다.’ ‘사나이란 策略이라는 가지 위에 計劃과 野心의 둥지를 짓고 사는 動物.’ ‘機會와 決斷은 天下를 다스리는 者の 第一法則’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망』에서 독자들이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즉 한국 독자들의 현실적 삶을 그야말로 일본의 ‘전국시대’와 병치시키는 광고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망』이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이러한 출판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불과 25년째를 맞이하는 1970년의 한국 땅에 사무라이 이미지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1972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은 요시카와 에이지의 『미야모토 무사시』 광고가 유력 일간지 1면에 실린 것에 대해 독자로부터 “대문짝만한 出版廣告가 2면이나 3면도 아닌 有力紙 1면에 칼 든 武人插畫와 함께 掲載되면서 북을 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투고된 것²⁹⁾을 보더라도 사무라이 이미지는 호감을 사지 못했다. 독자투고에서만은 아니라

29) 김종식, 「有力紙의 1면에 日小説廣告 웬말 國民感情上으로 容納못해」, 『경향신문』, 1972.6.14.

1972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26차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望』 등 일본시대소설이 각 매스콤을 통해 과대 선전되고 판매되는 것은 살벌한 劍客 예찬과 殺人을 예사로 저지르는 정신적인 危害性이 있음을 지난 70년 12월에 경고 했다고 환기시키고 아직도 일부 출판사에서 독자의 흥미에만 영합하여 문화적 사명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했다.”³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망』이나 『미야모토 무사시』 등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일본 역사소설이나 검객소설의 국내 인기는 이 사무라이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출판된 ‘다이제스트’판 『도꾸가와 이에야스』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일본 원저를 바탕으로 『대망』을 참고하여 두 권으로 “압축·재구성한” 것인데, 앞표지에는 역시 투구를 쓴 무사의 표정을 전면 배치하고 “武裝들의 칼에 올려진 喜悲 엇갈리는 한판 승부, 日本人 기질의 原流를 극명하게 밝혀 주는 大河小說!”이라는 큼직한 글귀를 새겨 놓고 있다. 뒤표지에는 “일본인의 참모습에 비로소 눈을 뜨게 할 日本人 지침서로서, 우리 세대 필독의 書이다”라고 쓰여 있다. 역자 후기에서도 이 책을 통해 “일본의 국민성을 알 수 있게 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살생을 가볍게 여기는 국민성”이나 “기만성”이 전국시대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인간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권력을 위한 파란 만장의 끈질긴 집념만은 우리로도 참작해야만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일본의 국민성’을 『대망』과 안이하게 연결시키는 자극적인 문구다. ‘日本人 지침서’로서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해 품고 있었던 ‘전쟁’ 등 사무라이 이미지를 『대망』에서 알 수 있다는 말이

30) 『매일경제』, 1972.7.5.

31) 박준황 편역, 『도꾸가와 이에야스 다이제스트(下)』, 고려원, 1984, 466, 468쪽.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 속에서 ‘집념’과 ‘인내’로 목표를 달성해간 ‘인간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와 지금의 ‘世上’을 ‘賭博場’, 아니 ‘전국시대’와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인간 도꾸가와 이에야스’와 동일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망』이 ‘전쟁’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점이다.

기실 『대망』의 집필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 사무라이의 활약을 그리고 있으며, 그 정신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쓰였다. 『대망』의 작가 아마오카 소하치는 실제 ‘전쟁’을 체험했고 목격했던 인물이다. 그는 전쟁 시기에 ‘보도반원’이었고, 가고시마의 특공대기지 에서 패전을 맞이했다. 이렇게 전쟁의 한 가운데를 지나온 직후 일본의 패전과 맞닥뜨렸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허탈감 속에서 『徳川家康』를 썼던 것이다.

그 무렵 내가 살던 집의 이웃집은 진주군(進駐軍)에 접수되어 장교 클럽식 접대소(接待所)가 되었던 모양으로, 매일 한낮부터 술에 취한 군인들이 국적(國籍)도 알쏭달쏭한 부인들과 희롱하며 드나들고 있었다.

비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이라, 재즈의 소음, 이따금 들리는 권총 소리……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군인이 가끔 내 집 문 안으로 잘못 들어오기도 한다. 특공대 기지(特攻隊基地)에서 애처롭기만 한 마음의 상처를 짓누르고 갓 돌아온 보도반원(報道班員)이었던 나는 끝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날마다 낚시대를 들고 바다로 피해 나갔다.³²⁾

이 인용문은 아마오카 소하치가 1946년 1월에 『徳川家康』를 쓰려고 했던 심정을 담고 있는 『대망』 서문의 초입부에 해당한다. 이 글을 보면

32) 아마오카 소하치, 박재희 역, 『大望』 제1권, 동서문화사, 1972, 1쪽. 이 저자 서문은 2005년판에는 「인간 평화 역사를 생각하며-아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라는 제목으로 저자 후기로 들어가 있다.

전장에서 갓 돌아온 아마오카 소하치는 ‘진주군’이 일본인 여성들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난세에 태어나 난세에 인고(忍苦)하며 평화를 이룩한 인물”을 통해 인간 세상의 ‘평화’를 다시 생각해 보는 소설을 착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서문 말미에서 아마오카 소하치는 『德川家康』를 “말하자면 나의 ‘전쟁과 평화’이며 오늘날의 나의 그림자여서, 그려 나가는 과거의 인간 군상에서 다음 대의 빛을 모색해 가는 이상소설(理想小説)”로 정의하고 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즉 ‘평화’를 희구하는 ‘이상소설’로서 『德川家康』를 집필했던 것이다. 하지만 『德川家康』를 쓸려고 마음먹었을 때의 작가의 심정은 전쟁에 참가했던 패전국 일본의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는 위 인용문의 ‘진주군’이라는 어휘 등에 나타나 있다. 이 작가 서문의 도입부는 2000년에 정식계약을 맺고 간행된 솔출판사 번역본에 실려 있는 저자서문과는 약간 상이하다. 이 부분이 솔출판사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을 때만큼 역사라는 것이 이상한 무게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채찍질한 적은 없었다. 나는 약 1년 정도 호구糊口를 위한 붓을 던져버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령군의 모습과, 시책施策, 변해가는 풍속 등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로 바뀌었다. ‘진주군(進駐軍)’이란 말이 ‘점령군(占領軍)’이란 말로 고쳐졌고, 그 ‘진주군’이 ‘여성들을 희롱하는 장면이나 작가 자신이 ‘특공대 기지(特攻隊基地)’에서 돌아온 ‘보도반원(報道班員)’이었다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 솔출판사판의 저본이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는 1987년의 『德川家康』 문고본이기 때문일 것이다.³³⁾ 아마오카 소하치가 『德

33) 솔출판사의 번역본 역자후기에서는 저본으로 “코단샤에서 발행한 1987~1988년 판본”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코단샤 문고본의 초판은 1973년 간행되었고, 여기에 수록된 서문이 솔출판사에서 싣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필자가 1953년 초판을 입수해 살펴보았는데도 박재희 번역본의 서문 내용의 ‘진주군’ 운운은 보이지

『徳川家康』를 집필한 계기는 38살에 전쟁에서 특공대 기지의 보도반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므로 더욱이 그가 ‘특공대 기지’에서 특공대원들의 죽음을 전송하며 패전을 맞이했다는 점과 『徳川家康』 집필을 관련시키고 있는 작가 후기의 다음 대목은 의미심장하기도 하다.

나는 이것(『徳川家康』-인용자)을 먼저 내 집 뜰 한구석에 모신 ‘공중관음(空中觀音)의 영(靈)들에게 바친다. 공중관음은 쇼와 이십년 봄, 내가 가고시마 현(鹿児島縣)의 시가야(鹿屋) 비행장에서 하늘로 전송한 특공대 젊은이들의 여러 영이다. 영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뒤를 부탁한다!’라고 하던 말을 잊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력(微力)한 문학도였던 나에게 이러한 방법의 공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웃으며 용서해 줄 것인지. (중략) 이 소설을 계기로 하여, 더욱 더 이에야스가 구상한 ‘싸움 없는 세계(당시의 일본)’가 여러 가지로 세계의 조명을 받게 된다면 반갑겠다.³⁴⁾

『대망』의 저자 아마오카 소하치는 『徳川家康』를 전쟁에 희생당한 ‘특공대 젊은이들의 여러 영들’에게 바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저자 후기는 1970년대에 출판된 『大望』에만 수록되어 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2005년판 『大望』이나 2000년에 출판된 솔출판사의 번역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망』이 일본의 특공대에게 바치는 책이라는 사실은 현재 입수 가능한 출판물에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작가의 비장한 심정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은 1973년에 간행된 일본의 문고판 『徳川家康』의 ‘문고판후기’에서다.

않고, 솔출판사의 서문과 동일했다. 따라서 박재희 번역본의 서문이 어느 저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오카 소하치의 아들이 쓴 에세이에 의하면 이 『대망』의 작가 서문에서 말하는 ‘진주군’ 운운은 아마오카 소하치가 문예지에 발표한 수필에 나온 글로 추측된다. (山岡賢次, 『いまなぜ家康か一父・山岡莊八と徳川家康一』, 講談社, 1982, 159-160쪽)

34) 아마오카 소하치, 박재희 역, 『大望』 제20권, 동서문화사, 1972, 398쪽. 이 후기는 2005년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소설 徳川家康』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가고시마현의 시카야기지에서 최후의 중군을 명받았던 내가 전쟁 후에 쓴 최초의 신문소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카야기지에서 차례차례 날아올라 오키나와의 미국 함정에 돌입하고 있었던 해군특별공격대의 전사(戰士)들에게 바치는 나의 헌화(香華)인 셈이다. 물론 당시에는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장렬함, 담담함, 또는 그것을 관찰하는 성실함을 이에야스의 초창기라는 시대에 빌려서 쓰려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⁵⁾

야마오카 소하치와 소설 『대망』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번역본이 ‘실록대하소설’로 수용하고 있는 『대망』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봉에 서서 수행했던 ‘해군특별공격대’, 즉 일명 ‘가미카제특공대’로 불렸던 전사들에게 바치는 소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야마오카 소하치는 ‘해군특별공격대의 전사(戰士)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에서 ‘전사’는 전쟁에서 죽은 ‘전사(戰死)’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를 가리킨다. 야마오카 소하치는 일본의 군국주의 전쟁에 희생당한 일본 젊은이들인 전사(戰死)자들의 영령에 『徳川家康』를 집필해 바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담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적과 ‘장렬하게’ 싸운 전사(戰士)들에게 헌화하는 것이다. 야마오카 소하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구한다는 이유에서 『대망』을 ‘이상소설’이라 말했으나, 그의 ‘평화’론은 전쟁의 희생자로서 ‘전사자’가 아닌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을 호명하는 순간 퇴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徳川家康』의 집필은 쓰보이 히데토가 지적하고 있듯이, 패전 후 일본이 ‘평화’를 말하면서 야스쿠니 정신이나 일본을 ‘신의 나라(神國)’로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바탕에 두고 있다. 오로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을 ‘강자로

35) 山岡莊八, 『文庫版に際して』 『徳川家康1 出生乱離の巻』, 講談社, 441쪽.

하고 거기에만 집중해 신격화하는 태도에서 쓰였던 것이다.³⁶⁾ ‘해군특
별공격대의 전사(戰士)들에게 바치는 나의 헌화(香華)’라는 말에는 승리
만을 우위로 삼는 ‘강자’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 그를 상징하는 인물로 『대망』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는 그간 일본에서 알려졌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너구리/능구렁이 영감(狸親父)’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인
물이다. 좋게 말하면 전략가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인물상이다. 대
개 후자의 의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판하는 말로 이 별명이 사
용된다. 역사적으로도 “견실하고 타산적이며, 매우 용의주도하며” 도요
토미 히데요시 집안을 멸망시킬 때 보여주었듯이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인정미가 없는” 인물로 평가되어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취했던 인물인 것이다.³⁷⁾ 야마오카 소하치는 이러한 도쿠
가와 이에야스의 결점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 내었다. 계산이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인내심’을 갖춘 인물에다 부하에 대한 배려가 깊은 ‘인간경
영’의 수완자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묘사했던 것이다. 동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소설의 소재로 삼은 시바 료타로는 ‘모략에 통달한 별 볼일
없는 현실주의자’로 ‘너구리/능구렁이 영감’의 이미지를 도쿠가와 이에
야스를 그린 작품에 투영시켰다. 따라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좋아하는
일본 독자들은 시바 료타로의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바
료타로는 1979년에 간행된 『霸王の家(패왕의 집)』(전2권)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그렸다. 이 작품은 1990년에 『徳川家康』(상·하)란 제목으
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 책 역시 『대망』과 마찬가지로

36) 坪井秀人, 『山岡莊八』 『国文学解釈と鑑賞』 49・15, 至文堂, 1984, 122-124쪽.

37) 児玉幸多, 『徳川家康』 『人物日本の歴史11 江戸の開府』, 小学館, 1975, 74-75쪽.

뒤표지에 ‘〈徳川家康〉을 읽고 그 지혜를 배우자!’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이란 나라를 260여 년 동안 그의 후손에 의해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조처한 그의 전략 전술, 권모 술수, 인간 통솔법, 처세 철학, 정치 철학, 행정 원리 등은 오늘의 ‘전국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리라”라고 쓰고 있다.³⁸⁾ 『대망』에서 말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물상이 국내에 번역된 시바 료타로의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아마오카 소하치와 시바 료타로가 그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차이는 무시되고 국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좋은 인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한국을 침략한 원흉을 무찌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³⁹⁾

1983년 7월 5일자 『경향신문』의 가십란 『餘瀋』은 몇 해 전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식인, 학생들 가운데 대망이란 장편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망』 선풍이 거세게 휘몰아쳤다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이 소설에서 난세를 헤쳐 나가는 지혜라든지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출세하는 법, 인간을 조종하는 기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는 법을 터득하려고 했다. 특히 권좌에서 물러나 낭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의 책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인간처세술의 교본이었던 셈이다”라고 쓰고 있다.⁴⁰⁾ ‘권좌에서 물러나 낭인 생활을 하

38) 시바 료타로, 안동민 역, 『徳川家康』상, 인문출판사, 1990. 표지.

39) 아마오카 소하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그린 소설을 1950-60년대 사이에 집필했다. 이 가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인공으로 한 『異本太閤記』(전7권, 1965)만이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다. 『대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번역되지 않은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인공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를 그린 『織田信長』(전8권, 1955-1960)가 『대명칭이』(1971), 『大傑』(1983), 『大覇』(1984),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1992), 『천하평정』(1993), 『야망은 꿈인가』(1993), 『오다 노부나가』(2002) 등으로 번역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40) 『경향신문』, 1983.7.25.

는 사람들에게 필독의 書였다고 하듯이 전두환 전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에 『대망』을 종일 정독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⁴¹⁾ 국내의 독자들이 『대망』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난세를 헤쳐 나가는 지혜'이고 '인간을 조종하는 기술' 즉 '인간경영'이라는 사고방식이었으며, 이는 『대망』에 그려진 사무라이의 정신이기도 하다. 1984년에 6권으로 출간된 신동욱 역의 『徳川家康』 책 표지에는 “이 책이 바로 『大望』 도꾸가와 이에야스다!”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 아래에는 “난세에 태어나서 대역전의 인간 승리를 거둔 徳川家康의 영웅적 야망과 굴절된 삶의 모든 것! 그는 과연 역사의 연출가인가? 주인공인가? 경쟁 사회의 비정한 능력주의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徳川家康이 남긴 위대한 교훈을 집중 조명한다!”라는 글귀들이 적혀 있다. 앞표지 안쪽 날개에는 ‘徳川家康像’의 사진과 함께 “영웅의 인간학! 영웅의 통솔학! 영웅의 결단학! 영웅의 승부학! 천하를 놓고 쟁패하는 사나이 대 사나이의 피끓는 결사! 모험! 승부욕!”이란 수식어가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망』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양태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내에 수용된 『대망』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고,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있다. 이는 현실적 삶 그 자체를 ‘험한 세상’ ‘전란’으로 인식하도록 독자들을 유인하는 『대망』의 출판 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대망』의 다양한 번역본의 존재가 설명해 주듯이 독자들은 이러한 출판 전략에 동조하며 『대망』을 읽었다. 사무라이 정신이 투영된 책에서 전란 같은 현실적 삶을 타개해 가는 ‘인간경영’의 처세술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2015년 현재에도 『대망』은 주로 기업경영인, 학자, 정치가 등이 추천하는 책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김봉영 제일모직 대표이사는 『대망』

41) 『경향신문』, 1996.8.28.

을 “정말 좋아해서 네 번이나 읽었다”라고 말하면서 “술한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바라는 바를 이뤄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에서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⁴²⁾ 또한 유영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교수는 “10권이 넘는 전집이라 책을 다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한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라를 통일하고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리고 정치란 이렇게 복잡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 책이다”⁴³⁾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망』은 조직 경영자에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계발’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기계발’은 1970년대 한국이 산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널리 유행한 담론이며, 이는 ‘성공학’이나 ‘자기관리’ 등의 다른 말이기도 하며, 근래에는 ‘자기경영’이라고도 불린다.⁴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계발한다’는 것이고, 곧 자기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이 ‘나’를 비롯해서 회사라는 조직과 국가, 나아가 ‘인간’ 그 보편적 차원에까지 확장된 세계를 『대망』은 그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망』이 수용된 것이다. 『대망』에 뒤따르는 ‘난세’ ‘경쟁’ ‘쟁패’ ‘지혜’ ‘전략’ ‘경영’이라는 수식어는 어찌면 ‘인간’의 삶을 새롭게 문제화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 사회를 ‘전쟁’의 축도로 바라보는 태도가 잠재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야마오카 소하치는 평화를 염

42) 『책 읽기 좋은 계절, 삼성 CEO들이 추천한 책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15.4.25.

43) 『유영제의 내 인생의 책(4) 대망-지혜로운 리더의 조건이란』, 『경향신문』, 2015.3.4.
이 밖에도 김황식 전총리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대망』을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꼽고 있다.

44)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263-292쪽.

원하는 ‘이상소설’이라 말했으나, 한국의 독자들은 ‘평화’와는 동떨어진 ‘현실’은 곧 ‘전쟁터’라는 인식에서 『대망』을 탐독했던 것이다.

『대망』에서 그려지는 전쟁 속의 삶은 일본적 사무라이 정신에 바탕을 둔다. 『대망』을 읽는 국내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일본의 ‘전국시대’에 투영시키면서, ‘전란’이나 ‘난세’를 살아가는 자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 발견하고 ‘인간경영’에 뛰어난 ‘강자’의 꿈을 『대망』에 실었던 것이다.

5. 결론

1950년대에 일본에서 간행되기 시작한 아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에 참여했던 작가가 패전의 허탈감 속에서 집필한 것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평화 염원이 이 책에 담겨있다. 국내에서는 ‘평화’와는 거리감이 있는 현실적 삶을 ‘전쟁’과 대치시키는 독자들에 의해, 이 현실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인생경륜 서로 받아들여졌다. 출판사의 전략도 애초부터 여기에 있었고, 국내의 『대망』 인기는 아마오카 소하치가 그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에서 ‘처세술’ 등을 배우려는 독자들의 요망에 뒷받침되고 있었다. 2013년의 8월 16일자 『경인일보』는 국내의 “해적판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단연 아마오카 소하치의 ‘대망’으로 2천만부가 팔렸다”⁴⁵⁾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대망』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판매부수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용은 방대하고 한국 사회 곳곳에 미쳤다. 이에 대해 본고는

45) 이영재, 『베스트셀러와 인세』, 『경인일보』, 2013.8.16.

다음 세 가지 점을 밝혔다.

첫째로 다양한 번역 판본 가운데에서도 『대망』의 존재가 돋보인 점을 알 수 있었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徳川家康』 번역본은 완역판부터 초역판, 다이제스판, 1권짜리 축약판에 이르기 까지 수종의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심지어 『대망』의 명언을 뽑은 ‘어록’도 출판되었다. 번역 타이틀도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야망』, 『대웅』, 『야망』이 있다. 현재는 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망』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야망』이다. 『대망』의 붐을 타고 『大成』, 『大志』, 『大閥』, 『大權』, 『大家』, 『大傑』, 『大物』, 『大道』, 『人間大望』, 『大夢』 등 ‘大’자를 붙인 일본 대중소설이 1990년대까지 출판되었다. ‘大’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기업소설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대망』은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독자들에게 ‘대망’을 선사하는 책이었으나, 그래도 일본의 대중소설이라는 점에서, 아직 일본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 『대망』은 ‘실록대하소설’이라 붙여 있으나 일종의 역사소설이면서 전쟁을 살아가는 사무라이의 이야기다. ‘도덕이나 윤리’와 무관한 ‘出世狂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조장’하는 작품으로도 비추어졌다. 그럼에도 출판사의 전략과 대대적인 신문 광고 등의 선전에 힘입은 탓인지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인생의 ‘지혜’를 구했다. ‘인생경륜서’ 혹은 ‘처세술의 교본’으로 『대망』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름으로 2000년에 정식 계약을 맺은 작품이 출판되면서부터는 일본을 이해하는 길잡이로도 받아들여졌다. ‘저급문화’의 이미지에서 ‘고급문화’를 담은 책으로 바뀌어 수용되었다. 한국문화와 관련을 맺은 책으로 선전하기 위해 ‘퇴계의 경 사상’이 『대망』에 투영되어 있다는 해설조차 등장했다.

셋째로 『대망』은 오로지 삶의 지혜를 터득해 주는 ‘인생경륜서’로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삶은 곧 ‘전쟁’의 다른 이름이라는 전제가 이 수용 양태 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 이 작품은 실제 ‘전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무라이 정신이 이야기의 저변에 자리하며, 작가는 전쟁에 참여한 후 패전 속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 『대망』의 수용에서 이 사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독자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전란’과 동일시함으로써 『대망』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한 ‘인간’으로 파악하고 그의 ‘역경’에 ‘자기’를 투영시켰다. 이런 까닭에 『대망』은 자기계발서 및 인간경영서로 각광받았다. 한편으로 사무라이 정신은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평화란 전쟁의 승리에서 온다. 아마오카 소하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담으려는 것도 이러한 사상일 것이다. 그러나 『대망』은 ‘평화’와 무관한 현실적 삶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각계각층의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일본적 이미지의 하나인 사무라이 정신은 경쟁 사회라는 현실에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대망』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와 같이 『대망』의 국내 수용은 다양한 면모를 지녔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띠었다. 『대망』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사회에 깊이 파고 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대적 배경과 추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망』 수용이 좀 더 상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출판사의 전략도 수용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대망』을 시작으로 ‘대’자라는 타이틀을 단 일본 대중소설이 대량으로 번역되어 소비된 현상이 한국 독자들의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표1) 아마오카 소하치 『徳川家康』와 주요 한국어번역본 대조표

1. 山岡荘八 『徳川家康』(講 談社, 1953-1967)	2. 박재희 역 『大望』(동서문화사, 1970- 1973/중앙문화사, 1983)	3. 김가평 역 『徳川家康』(希 文社, 1970)	4. 류일근 역 『大野望』(書正出版社, 1973/民衆書林, 1981)	4. 안동민 역 『大雄』(知 耕社, 1978)	5. 이길진 역 『도쿠가와 이 에야스』(솔, 2000)	6. 박재희 외 역, 『大望』(동서문화 사, 2005)		
1권 出生亂離 の巻	出生亂離	出生亂離	出生亂離의 巻	出生亂離 /出生亂離	出生亂離	(제1부 대망) 출생의 비밀	출생	
2권 獅子の座 の巻	獅子座	獅子座	獅子座의 巻	獅子座	獅子座 /獅子座	獅子座	인질	새벽
3권 朝露の 巻	朝露	朝露	朝露의 巻	朝露	華華/朝露	朝露	호랑이의 성 장	운명
4권 華の布 の巻	天下布武	天下布武	華華의 巻	渦潮	渦潮/華華	黎明	첫 출전	인생
5권 うず潮の 巻	颶風	颶風	渦潮의 巻	燃土	燃土/渦潮	岐路	갈대의 싸	승부
6권 燃える 土の巻	心火	心火	燃土의 巻	心火	颶風/燃 土	業火	미카타가하라 전투	영웅
7권 颶風の巻	無相門	無相門	颶風の 巻	碧雲	碧雲/颶風	颶風	불타는 흙	승패
8권 心火の巻	龍虎	龍虎	心火의 巻	無相門	無相門 /心火	心火	폭풍우	태풍
9권 碧雲の巻	山茶花	山茶花	碧雲의 巻	華嚴	龍虎/碧雲	碧雲	혼노사의 변	전쟁
10권 無相門の 巻	試練	試練	無相門의 巻	試練	佗茶 /無相門	和平祭物	(제2부 승자와 패자) 키요스 회의	소군
11권 龍虎の巻	難波	難波	龍虎의 巻	難波夢	明星瞬 /龍虎	龍虎	두견새	인간
12권 華嚴の巻	日蝕月蝕	日蝕月蝕	華嚴의 巻	日蝕月蝕	難波夢 /華嚴	華嚴	용호상박	왕생
13권 佗茶の巻	軍荼利	軍荼利	佗茶의 巻	軍荼利	軍荼利 /佗茶	前夜	비명	다이코1(요시카 와 에이지)
14권 明星瞬 くの巻	關原	關原	明星瞬의 巻	關原	關原 /明星瞬	明星	정략결혼	다이코2(요시카 와 에이지)
15권 難波の 夢の巻	泰平胎動	泰平胎動	難波夢의 巻	泰平胎動	泰平胎動 /難波	破局	모락의 바다	다이코3(요시카 와 에이지)
16권 日蝕月 蝕の巻	春雷遠雷	春雷遠雷	日蝕月蝕의 巻	春雷遠雷	春雷遠雷 /日蝕月蝕	日蝕月蝕	동쪽으로 난 길	다이코4(요시카 와 에이지)
17권 軍荼利 の巻	蕭風城	蕭風城	軍荼利의 巻	石雷落下	百雷落下 /軍荼利	偶話	아미타불의 빛	다이코5(요시카 와 에이지)
18권 関ヶ原 の巻	戰爭平和	戰爭平和	關原의 巻	戰爭과 平 和	蕭風城 /關原	決戰	대륙에 부는 바람	무사시1(요시카 와 에이지)
19권 泰平胎 動の巻	孤城落月	孤城落月	泰平胎動의 巻	孤城落月	孤城落月 /泰平胎動	太平胎動	떨어진 태양	무사시2(요시카 와 에이지)
20권 江戸・大 坂の巻	立命往生	立命往生	江戸・大坂의 巻	立命往生	立命往生 /江戸・大坂	正統異端	분열	무사시3(요시카 와 에이지)
21권 春雷遠 雷の巻	天地 演出 1 立志 (아마오카 소하치)	後大望 天地演出 (아마오카 소하치)	春雷遠雷의 巻		/春雷遠雷	春雷遠雷	(제3부 천하 통일) 파멸의 조짐	무사시4(요시카 와 에이지)

22권	百雷落 つるの巻	人間 曼陀羅 (야마오카 소하치)	後大望 2 風雲 (시바 료타로)	人間曼陀羅 (야마오카 소하치)	百雷落下의 卷		/ 百雷落 下	百雲落下	세키가하라 전투	나루토비침(요 시카와 에이지)
23권	蕭風城 の巻	日光 偃武 (야마오카 소하치)	後大望 3 狂瀾 (시바 료타로)	日光偃武 (야마오카 소하치)	蕭風城의 卷		/ 蕭風城	蕭風城	새로운 지도	나라를 훑시다1 (시바 료타로)
24권	戦争と 平和の巻	獨眼龍 (야마오카 소하치)	後大望 4 流轉 (시바 료타로)	獨眼龍 (야마오카 소하치)	戦争과 平和 의 卷		/ 戦争과 平和	戦争平和	태평시대의 태동	나라를 훑시다2 (시바 료타로)
25권	孤城落 月の巻	開道 (야마오카 소하치)	後大望 5 怒濤 (시바 료타로)	開道 (야마오카 소하치)	孤城落月の 卷		/ 孤城落 月	孤城落月	에도와 오사카	사카모토 료마1 (시바 료타로)
26권	立命往 生の巻	樹石 問答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6 回天 (시바 료타로)	前夜 (야마오카 소하치, 하정민 역)	立命往生의 卷		/ 立命往 生	立命往生	오사카의 고민	사카모토 료마2 (시바 료타로)
27권		樹石 問答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7 亂世 (시바 료타로)	大悟 (야마오카 소하치, 하정민 역)					낙퇴	사카모토 료마3 시바 료타로)
28권		門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越後行 (시바 료타로)	樹石問答 (요시카와 에이지)					유성	사무라이1 (시바 료타로)
29권		菩提 一刀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戰塵 (시바 료타로)	樹石問答 (요시카와 에이지)					격랑의 파토	사무라이2 / 불타라검1 (시바 료타로)
30권		心形 無業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0 破勢 (시바 료타로)	門 (요시카와 에이지)					전쟁과 평화	불타라검2/나는 뜻이 1(시바 료 타로)
31권		逃水記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1 列國 (시바 료타로)	菩提一刀 (요시카와 에이지)					고성낙월	나는 뜻이2 (시바 료타로)
32권		魚歌 水心 (요시카와 에이지)	後大望 2 砲火 (시바 료타로)	心形無業 (요시카와 에이지)					임명양생	나는 뜻이3 (시바 료타로)
33권			後大望 3 關道 (시바 료타로)	逃水記 (요시카와 에이지)						나는 뜻이4 (시바 료타로)

76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34권			後大望4 航跡 (시바 료타로)	魚歌水心 (요시카와 에이지)				언덕 위의 구름 1(시바 료타로)
35권			後大望5 大會戰 (시바 료타로)					언덕 위의 구름 2(시바 료타로)
36권								언덕 위 구름3 (시바 료타로)

(표2) 그 밖의 번역본

번역자	책명	권수	출판사	출판년도	권수 내역
박재희	徳川家康	20	동서문화사	1992	1.난세의 불모 2.잠자는 호랑이 3.용호상박 4.매화성의 피꼬리 5.대지의 탄식 6.낙화유정 7.그 다음에 부는 바람 8.노루와 호리병박 9.진동하는 봄 10.江戶의 본심 11.난파의 시련 12.일식 월식 13.하늘을 찢다 14.패자의 말로 15.뜨는 해와 지는 해 16.여인의 가을 17.음모의 심야회의 18.유량의 별 19.전야의 결단 20.입신왕명
	大望	20	중앙문화사	1993	1.난세에 태어나서 2.잠자는 호랑이 3.풍운의 움직임 4.매화의 성 5.대지의 탄식 6.회오리바람 7.강북출병 8.용호의 계약 9.진동하는 봄 10.동으로 가는 별 11.용을 부르는 구름 12.분열의 싸 13.태풍의 눈 14.승자와 패자 15.태평의 태동 16.빛나는 물결 17.거성의 부름 18.죽이지 않는 검 19.패장의 투구 20.입신왕명
김석만	大望	16	梧谷文化社	1982	未詳
나명호	徳川家康	1	盤石	1984	1.亂世之亂
안동민	徳川家康	20	지경사	1984	1.亂世에 태어나다 2.호르는 별 3.질풍의 소리 4.권력의 제물 5.불기둥 6.멸망의 노래 7.불타는 태양 8.시위를 떠난 화살 9.사슴과 호리병박 10.두 영웅의 해우 11.책모와 평화 12.대륙으로 부는 바람 13.풍운아의 두 얼굴 14.분열과 도전 15.이긴 자의 포부 16.조용한 폭풍 17.방울이 올리는 숲 18.베지 못하는 칼 19.패장의 투구 20.뿌리와 열매
신동욱	徳川家康	6	고려문화사 /한얼	1984 /1992	1.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다 2.불타오르는 땅 3.용과 호랑이의 싸움 4.성난파도의 꿈 5.대결전이 다가오다 6.고성(孤城)에 달 이지다
박준황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이제스트판	2	고려원	1984	
이성현	야망 도쿠가와 이 에야스	1	큰방	1999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등 신문.
城山三郎 外, 廉曙海 譯, 『人間大望』 제1권, 한국법조사, 1980.
시바 료타로, 안동민 譯, 『徳川家康』상, 인문출판사, 1990.
야마오카 소하치, 박재희 譯, 『大望』 전20권, 동서문화사, 1970.
_____, 안동민 譯, 『大雄』 전26권, 지경사, 1978.
_____, 신동욱 譯, 『徳川家康』 전6권, 고려문화사, 1984.
_____, 박준황 譯,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이제스트판, 전2권, 고려원, 1984.
_____, 박재희 譯, 『徳川家康』 제1권, 동서문화사, 1992.
_____, 박재희 譯, 『大望』 제1권, 중앙문화사, 1993.
_____, 이성현 譯, 『야망』, 큰방, 1999.
_____, 이길진 譯,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32권, 솔, 2000.
_____, 박재희 외 譯, 『대망』 전36권, 동서문화사, 2005.
山崎豊子, 石仁海 譯, 『大閥』 제1권, 삼한문화사, 1979.
지명관, 『小説 徳川家康이 웬말이나 包裝紙文化, 表皮文化 排撃論』, 『月刊中央』36, 중앙일보사, 1971.
花登筐, 尹淑寧 譯, 『大成』 제1권, 양우당, 1981.
山岡莊八, 『徳川家康』, 第1卷, 講談社, 1954.
_____, 『徳川家康』, 全26卷, 講談社, 1973.

2. 논문과 단행본

-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石仁海, 『大望經世語錄』, 동서문화사, 1981.
신인섭, 『일본의 영웅서사와 역사소설-현대 일본소설에서 본 내셔널리즘과 '지식인 대중』, 『비교문학』 제32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210-211쪽.
야마오카 소하치, 요코야마 미즈테루 작화, 이길진 譯, 『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1권, AK커뮤니케이션즈, 2005.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홍정선, 『일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대망』과 『오싱』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 7호, 1985. 여름호, 110-111쪽.

78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 児玉幸多, 『徳川家康』 『人物日本の歴史11 江戸の開府』, 小学館, 1975.
坪井秀人, 『山岡荘八』 『国文学解釈と鑑賞』 49 - 15, 至文堂, 1984, 122-124쪽.
山岡賢次, 『いまなぜ家康か一父・山岡荘八と徳川家康一』, 講談社, 1982.

Abstract

The Recep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Novel “*Daemang* (Tokugawa Ieyasu)”

Lee, Han-Jung (SANGMYUNG University)

This novel examines the Korean recep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Daemang*,”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Tokugawa Ieyasu” by Yamaoka Sohachi. “*Daemang*,” which was translated by Jae-hee Park and published in a series of 20 books in 1970, was then published in a series of 32 books in total by including the works by other authors. Currently, this novel is being distributed in the market in a series of 36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2005. For this translated version, up to vol.12 is “Tokugawa Ieyasu” by Yamaoka Sohachi, and the rest is the works by Yoshikawa Eiji and Shiba Ryotaro. In 2000, the entire 32 books of “Tokugawa Ieyasu,” which was translated by Gil-jin Lee and used the same title of the original book, were published after making the official license contract with Japan.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other translated versions of “*Daemang*” or “Tokugawa Ieyasu” that have a different number of books, and the digest version and the translated version “compiled into one book” were also published.

Yet, “Tokugawa Ieyasu” by Yamaoka Sohachi first passes as “*Daemang*” in Korea. The novel was titled “*Daemang*” to express the wish of the original author who wrote it while pursuing ‘survival’ and ‘peace.’ However, “*Daemang*” was accepted as symbolizing Tokugawa Ieyasu’s ‘Great Ambition.’ This book was treated as Tokugawa Ieyasu by the mass media due to the hostility toward Japanese culture, but captivated public readers as a book for experience and knowledge in life and textbook for the art of living. It was read widely across all generations, especially by company CEOs and politicians. This stemmed from readers’ desire to learn the “*Daemang*” of company and state management, which manage humans, through “Tokugawa Ieyasu” by Yamaoka Sohachi.

(Key Words: Yamaoka Sohachi, Tokugawa Ieyasu, low culture, human management,

80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Great Ambition)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